춤으로 그린 '모든 인간은 우담바라'

김복희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 '춤의 향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3월 5일부터 7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피의 결혼'의 한 장면.

'피의결혼', 신작인 '우담바라' 선보여
남지심소설 〈우담바라〉 춤으로 옮겨
원전속 '인간 존재 소중함' 그린 안무

1971년 창단후 '한국적 현대 무용' 모색
20여회 해외공연 한국현대무용 세계화
50년 동안 '법열의 시' 등 70여 편 발표

불교를 비롯한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를 통해 '한국적인 현대무용'을 모색해온 김복희무용단이 창단 5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한다.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피의 결혼'과 신작 '우담바라'를 선보이는 '춤의 향기'는 3월 5일부터 7일(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복희무용단의 시작은 무용가 김복희 씨가 23살 때인 1971년 명동 국립극장에서 시작됐다. '김복희 김화숙 무용단' 이름으로 '법열의 시'와 '四象의 디자인' 두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올해 72세의 무용가 김복희는 또 한 번 신작을 무대에 올린다. 신작 '우담바라'는 창단 50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의 의미와 더불어 김복희의 안무 철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창작의 연장선이며, 후배 무용가들에게 전하는 동기부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피의 결혼'은 1936년 국민군에 의해 살해된 스페인의 저항작가, 가르시아 로르카의 희곡 '피의 결혼(Bodas de Sangre)'을 안무한 것으로, 1997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7개국의 많은 도시(멕시코는 15개 도시)에서 공연된 김복희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김복희가 훗날 신경림의 시 '우리 시대의 새'를 원전으로 해 안무한 '우리 시대의 새'는 로르카 작품에서 보이는 비극과 어두움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낸 '한국적 현대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 '우담바라'는 남지심 작가의 소설 〈우담바라〉를 원전으로 한 작품이다. 남지심의 소설 〈우담바라〉는 1987년 제1권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제4권이 출간되면서 15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로 영화화되기까지 했다. 김복희의 50년 전 첫 작품이 '법열의 시'였다는 것에서 50년을 기념하는 신작 '우담바라'는 김복희무용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춤 '우담바라'는 원작 소설의 이야기를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골라 그 장면들을 강조해 여러 장의 그림처럼 무대를 꾸민다.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속 등장인물의 깊은 내면의 감정들이 만나고 부딪힘으로써 상징적 이미지들이 펼쳐진다.

김복희는 소설 〈우담바라〉에서 '인간 존재의 소중함'을 보았다. 신작 '우담바라'에서 모든 인간은 3천 년에 한 번 핀다는 천상의 꽃, '우담바라'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춤으로 표현한다. 춤 '우담바라'는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됐다. △첫 장면 '삶의 늪'에서는 인생의 늪에서 살아가는 채련, 동미, 한태서 등을 비롯한 여러 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그린다. △두 번째 장면 '타들어 가는 향(香)'에서는 남의 가문의 피를 지키기 위한 이씨 할머니를 중심으로 융, 당, 봉두 등의 이미지를 그린다. △세 번째 장면 '가슴 속 가슴'에서는 삶의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도 순결한 사랑이 싹트고, 지효를 사랑하는 봉두의 마음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목각의 모양을 통해 사랑과 이해의 화합을 그린다. △네 번째 장면 '울림'에서는 화합과 사랑, 평화 그리고 윤회의 의미가 담긴 군무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출연 무용수들의 '구성'이다. 62세의 손관중(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50대의 서은정(대전대 교수), 이정연(이정연댄스프로젝트 대표), 김남식(댄스투룹-다예술감독), 40대의 박은성(한양대 겸임교수), 문지애(국립국악고 강사), 박종현(추계예술대학교수), 이지희(충북예고 강사), 30대의 제자들 김은정, 최재혁, 권민찬 등 춤 잘 추기로 이름난 안무가와 무용수들, 그리고 2018년 2019년 2년에 걸친 김복희의 〈피의 결혼〉 스페인 공연에 출연했던, 20대의 제자 권재헌 윤혁중 등 다양한 연령층의 무용수들이 함께 출연한다.

김복희무용단은 한국현대무용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용단으로, 많은 해외공연을 해왔다. 1990년 이후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20여 회 해외공연을 통해 한국적인 현대무용을 해외에 소개했다. 또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현대무용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1971년 제1회 공연을 명동예술극장에서 가진 후 지속적으로 한국성과 현대성을 추구하면서 예술과 대중화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법열의 시', '요석, 신라의 외출', '아홉 개의 의문', '피의 결혼' 등 많은 작품을 공연했으며 매년 신작을 발표하고 있다. (02)2263-4680



김복희 씨〈사진〉는 이화여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교수와 동대학원 예술학부 학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1971년 첫 개인발표회 후 현대무용이라는 서양 메소드에 '한국성'을 접목한 작품 70여 편을 무대에 올렸다.

'법열의 시'를 시작으로 '흙으로 빚은 사리의 나들이', '향', '요석, 신라의 외출', 에밀레종을 소재로 한 '뒤로 돌아 이 소리를', 선을 주제로 한 '아홉 개의 의문, 그리고', 이광수의 소설 꿈을 원전으로 한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 '바라춤' 등 불교적 소재와 이미지를 한국적 현대 작품으로 지속해서 구현해 왔으며, 이청준의 소설 〈눈길〉, 김영태의 시 '덫', 서정주의 시 '진달래꽃', 신경림의 시 '우리 시대의 새' 등 문학작품을 원전으로 한 안무를 계속해왔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문인 가르시아 로르카의 3대 비극 〈피의 결혼〉,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예르마〉는 각각 김복희의 '피의 결혼', '슬픈 바람이 머문 집', 그리고 '석녀 예르마'의 원전이 되었다. 특히 〈피의 결혼〉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라틴 문화권에서 격찬을 받았던 한국적 현대무용이다.

1979년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4년 옥조근정훈장에 이르기까지 다수 수상했으며, 〈춤으로 삶의 집을 짓다〉, 〈춤을 타고 세계로-무용수필집(공저)〉, 〈현대무용테크닉〉, 〈무용 창작론(공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대가가 남긴
'석굴암 사진' 감상하세요

故 한석홍 작가 기증사진 무료 다운로드

평생을 문화재 사진을 촬영해 온 1세대 문화재 사진작가 故 한석홍(1940~2015)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국보 제24호) 사진을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故 한석홍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 69점을 국민 누구나 활용 할 수 있게 공개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사진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2월 17일부터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게 됐다.

1909년 재발견 직후의 석굴암 사진은 대부분 일본 정부와 학자가 연구 · 조사를 위해 촬영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가가 안정되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로 석굴암을 보수하며 사진을 남기기 시작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당시 정부는 석굴암을 수리했고, 정명호(1934~), 故 김준식(1923~1992), 故 정영호(1934~2017) 교수에게 촬영을 맡겼다.

1980년대 이후 문화재 사진은 재현의 장치로서 전문적인 영역이 구축된다. 문화재 전문 사진촬영을 이끈 대표주자가 바로 故 한석홍 씨다. 앞선 시기의 문화재 사진 촬영이 과정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면, 그의 사진은 문화재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재현의 장치이자 예술작품이다. 우리가 흔히 접했던 대부분의 석굴암 사진은 故 한석홍 작가의 작품이다.

故 한석홍 작가가 석굴암을 접한 건 1981년으로 일본에서 출간한 〈세계의 미술〉 제2권 한국 · 동남아시아 편의 석굴암 사진을 담당하면서부터다. 이후 1986년, 2000년 미술사학자 강우방의 저서의 사진을 의뢰받아 다시 석굴암 촬영을 진행했다. 세 차례의 촬영을 통해 그는 석굴암의 면면을 필름 1172장에 담아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故 한석홍 씨의 석굴암 사진, 필름 등 1172점을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이 자료들은 1981년, 1986년, 2000년 세 차례 걸쳐 촬영된 석굴암 사진으로, 해외 유명 전시와 각종 도록에 수록된 사진 등도 포함돼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증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에 〈석굴암 그 사진〉 사진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사진은 사진집에 수록된 것들 중 대표적인 사진 69점을 고화질로 디지털화한 것이다.

원본파일은 공공누리 1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든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 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신입생 모집기간
대광사 종무소 접수 및 전화신청 후 입학원서 제출

■ 학 제 : 3년 6학기 과정 / 주야, 화·수·목
■ 교과배정 비율 : 이론70%, 실기30%
- 불교교리 30%, - 심리상담 40%, - 명상 30%
■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붓다의 깨달음을 천태법화의 수행관으로 편성한 공空, 가假, 중中 세단계를 점차로 닦아 삼제원융(三諦圓融)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한다.
■ 수 강 료 : 1학기당 17만원 / 기업 031 715 7000 / 사단법인행복명상
■ 수료후특전 : 명상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교 통 : 분당선, 신분당선 / 정자역, 미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번, 2번,19번 / 오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 19번

과 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 격	전형요강
空 기본 (1년)	【화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학력,종교 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 면 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2학기	• 명상(이론, 실기병행)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성격심리학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학기	• 자비명상		
요 가	【화요일】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 수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30 Tel. 031)715-3000, Fax 031)715-3409 홈페이지 http:// www.daegwangsa.org

